<10.16873/tkl.2015. 71. 265>
한국문학논총 제71집(2015. 12) 265~304쪽

고진하의 후기시에 나타난 기독교사상의 심층생태주의적 양상 연구*

김 동 명**

차 례

1. 머리말
2. 창조주의 현존과 관계성
3. 비선형적 생성과 복잡성
4. 창조적 변형과 순환성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고진하의 후기시에 나타난 기독교사상의 심층생태주의를 논의했다. 그 결과 창조주의 현존과 관계성, 비선형적 생성과 복잡성, 창조적 변형과 순환성이 도출되었다. 그의 작품에 내재된 생태주의의 관계성, 복잡성, 순환성이 기독교사상을 통해 추출된 것이다.

먼저, 창조주의 현존과 관계성에서는 창조주의 영성이 내재된 가운데 발현되는 생명현상이 논의되었다. 그의 시에서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 사물은 창조주의 영성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가능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7338)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한 생명현상의 특징이 논의되었다.

또한, 고진하 시에서 비선형적 생성과 복잡성이 도출되었다. 그의 시에서 창조주는 '숨은 신'과 '생성하는 신'으로 암시된다. 생명현상의 전 범위에 걸쳐 매순간 각 개체와 상호작용하는 창조주의 영성이 논의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비선형적 생성과 복잡성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고진하 시에 나타난 죽음이나 소멸은 창조적 변형을 통한 생성의 계기로 논의되었다. 그의 시에서 죽음은 부활사건의 수용을 통해, 더 높은 상태의 생성으로 나아가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창조적 변형과 순환성으로 논의되었다.

주제어 : 고진하, 기독교사상, 심층생태주의, 관계성, 복잡성, 순환성

1. 머리말

고진하는[1] 등단한 이후, 지금까지 총 7권의 시집을 상재한 중견시인이자 목회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목사이다. 그는 근대화로 인해 황폐화된 농촌현실과 작금의 종교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해 왔다. 최초의 시집인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과 두 번째 시집 『프란체스코의 새들』에서는 산업화로 인해 황폐화된 90년대 농촌 현실과 한국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주로 형상화되었다. 그에 비해, 세 번째 시집 『우주배꼽』 이후부터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부터 발현되는 생명현상과 창조주의 영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2]

---

1) 고진하(1953~)는 강원 영월에서 태어나 감리교 신학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7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고, 숭실대학 문예창작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시집으로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1990), 『프란체스코의 새들』(1993), 『우주배꼽』(1997), 『얼음수도원』(2001), 『수탉』(2005), 『거룩한 낭비』(2011), 『꽃 먹는 소』(2013) 등이 있다. 김달진문학상과 강원작가상을 수상했다.

『우주배꼽』 이후 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고진하의 종교적 사유와 생태주의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그의 시에 내장된 생태주의가 그의 종교적 사유를 통해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 그의 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만유재신론과[3] 종교다원주의의 논의는[4] 기독

2) "전기시(1, 2시집)에서는 신(神)의 부재와 현실의 불모성을 비판하면서 그 실존적 고통을 견디는' 태도가 강한 반면, 후기시(3, 4시집)에서는 우주에 편재(遍在)한 신성(神聖)을 노래하거나 인간을 통한 신의 현현(顯現)을 형상화한다."
나희덕, 「시적 상상력과 종교다원주의-고진하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04, 34쪽.

3) 김양헌, 「편재론적 상상력, 눈부신 신성의 낯설음」, 『서정시학』 7집, 깊은샘, 1997.
남송우, 「기독교 시에 나타나는 생명현상」, 『생명시학 터닦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0, 313-345쪽.
유성호, 「다시 '빈 들'에서 '시'를 사유하다」, 『거룩한 낭비』, 뿔, 2011, 115- 126쪽.
김형태, 「고진하 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동명, 「고진하 시에 나타난 만유재신론적 생태주의 연구」, 『한국문학논총』 65집, 한국문학회, 2013.

4) 김기석, 「이곳과 저곳 사이의 서성거림」, 『우주배꼽』, 세계사, 1997, 95-110쪽.
엄국현, 「경계적인 인간의 탐색의 노래」, 『서정시학』 7집, 깊은샘, 1997, 76쪽 참조.
윤성희,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서정시학』 7집, 깊은샘, 1997, 88-101쪽.
이혜원, 「지상의 성소를 찾아서」, 『서정시학』 7집, 깊은샘, 1997, 130-139쪽.
홍용희, 「신생의 위기와 재생」, 『서정시학』 7집, 깊은샘, 1997, 109쪽 참조.
남진우, 『그리고 신은 시인을 창조했다』, 문학동네, 2001.
유성호, 「신이 부재한 시대의 '신성' 발견」, 『유심』 7집, 2001. 겨울, 315-325쪽.
장영희, 「고진하 시 생태의식 연구」, 『문창어문논집』 28집, 문창어문학회, 2001, 201-221쪽.
_____, 「한국 현대 생태시의 영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나희덕, 앞의 논문, 27-49쪽.
김문주, 「느림의 문화와 기독교 영성-고진하의 시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56집, 민족어문학회, 2007, 207-230쪽.
김형태, 앞의 논문, 2012.
김홍진, 「고진하 시의 종교적 상상력 연구」, 『현대문예비평연구』 제38집, 2012, 137-163쪽.
김동명, 「이성선과 고진하 시에 나타난 생태주의의 복잡성 비교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8집, 현대문학이론연구학회, 2014.

교사상의 생태주의를 보여주는 성과로서 주목된다. 그의 시에서 도출된 만유재신론적[5] 생태주의는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의 만유재신론적 특징과 변별되지 않는[6] 문제점을 보이지만 기독교가 생태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7] 기독교사상과 생태주의의 연관성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종교다원주의의[8] 논의 역시 생태주의의 성과와 관련하여 기독교사상의 독자적 의미를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기독교사상을 통한 생태주의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한편, 고진하의 기독교사상이 주로 만유재신론이나 종교다원주의로

---

5) 만유재신론은 크라우제(C. F. Kruse, 1781-1832)에 의해 도입된 이후로 1953년에 하트숀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신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만유재신론(萬有在神論panentheism)은 축어적으로는 'παν'(모든 것), 'εν'(안에), 'Θεος'(신)의 합성어로서 모든 만물이 신 안에 있다는 의미이다.
윤철호, 『현대신학과 현대 개혁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3, 360-361쪽,

6) 만유재신론은 기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종교적 전통에서 나타난다. 유대교 카발라(Kabbalistic) 전통들과 이슬람 수피 전통은 분명한 만유재신론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힌두 철학 전통들도 만유재신론적이다. 기독교에서 만유재신론의 정의는 '하나님의 존재는 전 우주를 포괄하며 전 우주 안에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모든 부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 이상이며 우주에 의해 다 소진되지 않는다'. 범재신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윤철호, 위의 책, 68쪽 참조.

7) 린 화이트는 창세기 1:28-"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창조 신앙을 근거로 삼아 기독교사상이 환경파괴의 근거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F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in Science 155, 1967, pp. 1203-1207.(장윤재, 「켈트 영성: 창조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교」, 『한국기독교신학논총』제71권, 한국기독교학회, 2010, 177쪽에서 재인용)

8) 종교다원주의는 신앙인-신학자가 자기가 믿는 종교 이외의 종교들에 대하여 적어도 그 도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 인식까지도 긍정하는 자세를 말한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종교다원주의는 타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길희성, 「종교다원주의」, 『종교연구』 28호, 한국종교학회, 2002, 7쪽.

논의된 이유는 그의 종교적 태도가 초월적 창조주를 표방하는 전통신학과[9]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제도화된 전통신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는[10] 한편 불교사상, 노장사상, 우파니샤드의 사유를 포섭하며 열린 기독교 신앙을 노정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창조주의 영성을[11] 인식하는 그의 방식이 전통신학에서 제시하는 초월적 창조주에 대한 이해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기독교의 목회자라는 점을 전제할 때, 그의 세계관이 성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진하가 볼 때,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무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가 지향하는 기독교는 창조주와 하나가 되는 데 있다.[12] 이와 같이,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한 그의 유기체적 지향과 생태적 사유에 대한 관심을 전제할 때,[13] 그의 종교적 상상력은 작금의 생태계 위기와 관련하

---

9) 그리스도교의 전통적·통상적 신관에 의하면 하느님은 세계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로서,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와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전통적 신관이 하느님의 내재성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초월성에 대한 강조는 하느님과 자연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차단했으며 자연의 탈성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길희성, 「엑카르트와 현대」,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 사상』, 분도출판사, 2003, 10쪽.

10) "교계의 원로라는 분들이 교단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아마도 필시 신도들이 바친 헌금을 가지고 선거 때마다 몇 억 원씩 쓴다고 하는데(… 중략 …) 오늘날처럼 구부러지고 뒤틀린 무신(無神)의 시대(… 중략 …)
고진하. 「무신(無神) 시대의 하나님 신앙」, 『새가정』 440호, 새가정사, 1993, 11월호, 38-39쪽 참조.

11) '영성'은 기독교적인 삶에서 작용하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그리스도적인 존재의 본질을 이루는 생명의 원리나 에너지를 뜻한다.
정희수, 「기독교의 영성과 동북 아시아의 종교적 심성」,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96, 23쪽 참조.

12) 김동명, 「고진하 시에 나타난 만유재신론적 생태주의 연구」, 391쪽.

13) "걸어 다니는 짐승들과 꽃 피고 지는 식물들, 그리고 아주 보잘 것 없는 미물들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내 몸에 들어 왔다(내 머

여 인간과 동·식물, 무기물의 영성적[14] 측면과 유기체적 특성에 주목하는 심층생태주의와[15] 긴밀히 연결된다.

주지하다시피, 심층생태주의의 주된 관심은 생태계 내 모든 존재들이 유기체적 체계 속에 있으며, 무기물까지 포함한 모든 개체에 영성이 내재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Holy Spirit)과 심층생태주의의 영성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16]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진하 시에 나타난 기독교사상의 심층생태주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 기독교사상의 심층생태주의를 정리해

리가 아니라!)."

고진하, 「시적(詩的) 상상력과 영성」『세계의 신학』 33집, 1996, 57쪽.

14) 영성이 신학 내지 형이상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학이 곧 영성은 아니다. 영성은 영적 실재, 혹은 신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고 경험이다.(… 중략 …)물질과 몸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창조물로서 선한 것으로 긍정하는 성서적 영성이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현대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창조의 영성, 몸의 영성, 자연의 영성이 새롭게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길희성, 「동서양의 영성 전통과 현대 영성의 과제」, 『서강인문논총』 제2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273-289쪽 참조.

15) 1973년 노르웨이의 철학자인 아르네 네스Arne Naess가 스피노자Spinoza와 간디Gandhi, 불교의 영향을 받아 표방한 사상으로, 자연관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이론적 및 실천적 지향을 의미한다. 전 단계에 진행된 환경생태주의를 '표층생태주의'라 비판하면서 등장한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생태계 위기에 대응한 강령으로써 상호 연관성, 생물권적 평등주의, 전일성, 다양성과 공생성, 반계급, 복잡성을 부르짖는다.

와위크 폭스, 정인석 역, 「아네 네스와 디프 이콜러지의 의미」, 『트랜스퍼스널 생태학』, 대운출판, 2002, 107-163쪽.

16) 생태중심적 생태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성령(Holy Spirit)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특별한 구분이나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영(spirit)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생태중심적 생태신학자들이 우주와 자연을 하나의 신의 몸으로 해석하여 그들의 입장을 전개하기 때문에 전통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할과 생태중심적 생태신학자들이 말하는 성령과의 구분에 대해 병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는다.

레오나르도 보프, 김항섭 역, 『생태신학』, 카토릭출판사, 1996, 58-59쪽 참조.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개체와 상황이 상호 관계된 가운데 생명현상을 발현한다는 사유는 생태주의의 공통된 메시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과정신학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창조주의 현존을 통한 영성적 자아는[17] 관계성을 담지한 생명현상의 특징으로서[18] 심층생태주의의 관계론적 자아와[19] 상통하는 것이다. 문학 연구에서 심층생태주의의 관계성은 마찬가지 양상으로 논의되며, 창조주의 현존을 통한 관계성도 같은 맥락으로 논의할 수 있다.

또, 생태계의 생명현상이 무질서와 질서의 뒤섞임 속에서 작용한다는 특성은 복잡성의 원리를 환기한다. 생태계의 생명현상은 생성의 과정에서 그 현상을 일으킨 원천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

---

17) 성부는 창조의 창조하는 원인이고, 아들인 예수는 창조의 형성하는 원인이며, 성령은 창조의 삶을 주는 원인이다. 창조는 성령 안에 존재하고 아들에 의해 형성되며 성부에 의해 창조된다. 창조주는 전체로서의 그의 창조 안에, 그리고 모든 개별절인 피조물들 안에 거하는데, 이는 창조주의 현존의 방식이다. 성령을 통하여 창조자는 그의 각각의 피조물들 속에 현존한다. 그의 성령의 힘으로 창조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Juergen Moltmann, *God in Greation: A New Theology of G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Translated by Margaret Kohl(London: SCM Press, 1985), xiv (신옥수, 「몰트만의 "우주적 성령" 이해」, 『장신논단』 26, 2006, 229-240쪽에서 재인용)

18) "생명의 영, 이것은 무엇보다도 피조물의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만물은 서로 의존해 있고, 서로 함께 지내고, 서로를 위하며, 종종 서로 안에서 공생하기를 좋아합니다. 생명은 사귐이고, 사귐은 생명을 전달합니다. 창조의 영과 마찬가지로 새 창조의 영도 인간들 사이에서 그러하듯이 인간과 모든 다른 생명체 사이에서 생명의 사귐을 회복합니다."
J. 몰트만, 이신건 역, 『생명의 샘』, 대한기독교서회, 2000, 40쪽.

19) 심층생태주의자 네스가 스피노자와 간디의 영향을 받아, 정립한 '자기 실현 Self-realization!'의 개념은 자기 감각을 현세적인 의미로 될 수 있는 한 확장하는 것을 말하며, 'self'의 's'를 대문자 'S'로 나타내어, 그 의미를 표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와 세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와위크 폭스, 정인석 역, 「아네 네스와 디프 이콜러지의 의미」, 앞의 책, 157쪽.

이다.[20]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과정신학의 '숨어 있는 신'과 '생성하는 신'의 개념은 주목된다. 이는 생명현상의 전 과정에서 작용하는 창조주의 영성이 비선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21] 이러한 현상은 공간의 생성적 특성, 비인과성 등 비선형적 생성의 복잡성을 담지하며, 문학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나아가 모든 개체의 생명현상이 변형(transformation)을 수반한다는 화이트헤드의 발언은[22] 순환성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러한 논의는 각 개체들이 생명발현의 과정에서 서로를 내재적으로 전제함으로써 그들의 구조에 들어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도 하고 끌어들이며 변화 생성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또한 양자 물리학자 폴킹혼은 생성을 추동하는 인자로서의 부활사건을 강조한다.[23] 그의 사유를 전제할 때,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각 개체의 소멸과 죽음은 순환성의 의미를 내장한다. 기독교사상과 관련하여 생태계 내 모든 개체와 전체 생태계의 종말적 현상은 창조적 변형의 의미를 내장하는 것이다. 창조적 변형과 순환성은 잠재적 순환성, 과정으로서의 순환성, 죽음과 소멸의 순환성으로 논의할 수 있으며 문학 연구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진하 시에 내재된 기독교사상의 심층생태주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시세계를 창조주의

---

20) F. Capra, *Ecological Literacy, The Web of Life*,(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96) p. 299.

21) Jürgen Moltmann, *God in Creation: A M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pirit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p. 154.(윤철호, 「변증법적 만유재신론」, 『장신논단』 28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07, 69쪽에서 재인용)

22)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범주의 도식」, 『과정과 실재』, 민음사, 1991, 77-100쪽. 참조.

23) John Polkinghorne, *Partg 4, Introduction: Realistgic Eschatology*,(edit) J. polkinghorne and M. Welker, op. cit., p. 205.(정성민, 「희망의 종말론에 관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 『원우론집』 36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2002, 249쪽에서 재인용)

현존과 관계성, 비선형적 생성과 복잡성, 창조적 변형과 순환성으로 유형화할 것이다.

논의의 대상으로는 후기시로 거론되는 『우주배꼽』, 『얼음수도원』, 『거룩한 낭비』, 『꽃 먹는 소』에 실린 시편으로 한정한다.[24] 그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사유가 인간소외, 신의 부재, 현실의 불모성에 대한 비판 등 실존의 고통이라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해, 이 시기부터 창조주의 내재를 통한 신성을 노래하거나 인간을 통한 창조주의 현현, 자연현상에 주목함으로써 기독교사상의 심층생태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창조주의 현존과 관계성

일반적으로 생태주의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 28)는 성경 구절이 생태계 파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볼 때, 이 구절은 신 중심적 경향을 노정하는 가운데 부차적인 인간중심주의를 암시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에 대한 세력 장악과 그로 인한 이원화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25]

성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과정신학으로[26]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다.

---

24) 전기시는 1, 2시집인 『지금 남은 자들의 골짜기엔』(1990), 『프란체스코의 새들』(1993)로 후기시는 『우주배꼽』 이후 출간한 시 모두가 해당한다.
나희덕, 앞의 논문, 34쪽 참조.

25) 린 화이트는 유대-기독교적 창조관의 영향 때문에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이 형성되었고, 자연의 무제한 약탈과 훼손이 자행되었다고 주장한다.
Lynn White, Jr., *op. cit,* pp. 1203-1207.(장윤재, 앞의 논문, 177쪽에서 재인용)

26) 과정신학에서 생태학적 성서해석은 모두 우주적 생명의 상호그물망에 대한 총체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적 목적이 전 우주 만물 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보면서 모든 사물들 간의 관계성 그 자체를 '선'으로 또는 '은총'으로 이해한다.

‘대상이 관계를 만든다’는 종래의 인식을 뒤엎고 ‘관계가 대상을 규정한다’고[27] 보는 과정사상이 심층생태주의의 관계론과 과정신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과정신학자 몰트만은 생태계의 모든 개체가 창조주의 영성을 통해 각 개체와 관계되는 가운데 생명현상을 발현한다고 주장한다.[28] 성부인 창조주는 생태계를 초월하지만 성령으로서 내주한다는[29] 것이다.

이는 예수를 통한 창조주의 영성이 사물의 본성을 안으로부터 자극하여 사물들의 내적 본성 및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된다.[30] 따라서 생태계 내 모든 개체와의 관계를 통해 발현되는 생명현상은 창조주와의 사귐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전제된다. 원래 성령은 창조주의 영과 피조물 속에 거주하는 창조의 영으로 인식되었으나 전통신학에서 창조주의 성령만이 강조되었고,[31] 그로 인해 창조주와 인간의 분리,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할 때, 인간을 비롯한 모든 개체는 성령을 통한

이정배, 「유교적 자연관과 생태학적 인간」,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대한기독교서회, 1999, 100쪽 참조.

27)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범주의 도식」, 앞의 책, 77-100쪽 참조.

28) J, 몰트만,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한국신학연구소, 1987, 207쪽 참조.

29) Schechina(‘하나님의 거하심’) 쉐키나의 목적은 모든 창조를 ‘하느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자이며 성령은 모든 피조물들 안에 있다. 창조자주 전체로서의 그의 창조 안에, 그리고 모든 개별적인 피조물들 안에 거하는데, 이는 그의 영이 그들을 한데 묶어주며 그들을 생명 안에서 유지시켜주기 때문이다.
Juergen Moltmann, *op. cit*, xiv(신옥수, 앞의 논문, 232쪽에서 재인용)

30) 이정배, 「신과학 사조와 기독교적 영성」,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155쪽 참조.

31) “아버지는 성령의 품 안에서 아들을 낳고, 아버지는 아들과 더불어 성령을 내쉬며, 성령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계시하고 아들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레오나르도 보프, 이세형 역, 『삼위일체와 사회』, 대한기독교서회, 2011, 24쪽 참조.

창조주와의 관계성 안에서 자신을 개방하고 창조적 선택을 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현상을 발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정신학의 이러한 원리는 동·식물, 무기물, 우주현상, 비가시적 상황까지 모든 개체가 관계되어야 생명현상이 가능한 심층생태주의의 관계론적 자아와 통한다. 기독교사상을 통한 심층생태주의의 관계성이 정초되는 것이다.

다음 시 「불멸의 조각」에서는 인간과 동·식물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생명현상이 포착된다.

> 등 푸른 물고기들이/나무에서 헤엄쳐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지상의 어떤 마술보다 흥미로웠어./은빛 비늘 대신 나무 조각만 수북이 남겨놓고/꼬리지느러미를 탁탁 치며/허공으로 사라지는/물고기는 나무 둥지로 돌아오지 않았고,/그렇게 사라져 돌아오지 않는 것은/나무의 영혼이 자유롭기 때문일 거야
>
> -「불멸의 조각」부분(『거룩한 낭비』-26)

위 시에서 화자는 모든 개체와 현상을 관계성으로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불멸의 조각」에서 "등푸른 물고기들"과 "나무"는 동물과 식물을 표상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물고기들이/나무에서 헤엄쳐 나오"고 등푸른 물고기들이 "나무 조각"을 "수북이 남"긴다든지 "나무의 영혼이 자유롭"다는 표현은 식물과 동물의 상호 관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의 본질이 같은 곳에서 비롯되며, 그럼으로써 두 종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32] 기독교사상의

32) 시편 104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위는 다른 생명체와 다르지 않다. 시편에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이 창조주의 활동을 전제한 가운데 서로 관련되어야 생명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로서 인간과 동·식물의 가치가 평등다고 보는 것이다.
슈텍 외, 박영옥 역, 『세계와 환경』, 한국신학연구소, 1990, 63-69쪽 참조.
이러한 논의는 인간과 동·식물의 가치가 같다는 사실로서 기독교사상에서 표방하는 생태관과 심층생태주의에서 제시하는 생태적 가치관이 같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주된 관심이 창조주의 영성이 내재하는 이웃으로서의 자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는지에 있다고 볼 때,[33] 위 시 「불멸의 조각」은 기독교사상을 통한 심층생태주의의 관계성으로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한편, "마술"이라는 어휘는 그 의미가 내장한 신비적 차원으로서 세계에 작용하는 창조주의 영성을 암시한다. 따라서 위 시의 "물고기"가 "나무에서 헤엄쳐 나"온다는 표현은 창조주의 영성이 두 차원 사이를 순환하며 관계하는 생명현상을 암시한다. 창조주의 영성이 나무에 작용하여 새로운 현실태인 물고기로 현현(顯現)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창조주의 영성을 통한 '식물'과 '동물'의 상호관계성은 세계의 어떠한 것도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창조주와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와 동시에 다른 어떠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생명현상을 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생태계 속의 자연, 자연 속의 인간, 인간 속의 인간 등 모든 개체와 개체가 창조주와 연결될 뿐 아니라, 모든 대상의 안과 밖, 즉 현상이나 본질이 상호 연결된 가운데 생명발현이 가능하다는[34] 사실을 의미한다. 서로 연결된 가운데 "마술"로 비유된 창조주의 영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각 개체의 생명현상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다음 시 「신성한 숲」에서는 우주현상에 내주하는 창조주의 현존과 관계성이 포착된다.

> 저녁놀을 공양 받고 있는 너에게로/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지./엄마 젖을 빠는 아이처럼 너는/전신(全身)의 빨대로 완숙된 포도주를 빨기에/여념이 없었지./다복솔과 아카시아, 철쭉과/자작나무, 시끄러운 지저귐

33) 그 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닌다. (… 중략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뗀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사야서 11장 6-9)

34)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유기체적 세계관」, 앞의 책, 739-745쪽 참조.

> 을 멈춘 채/한껏 몸을 낮추는 새들, 그들/틈에 나도 끼여 그 극진한 공양을 받으며/발그레 취기(醉氣)에 젖어들었지./잠시 후 보랏빛 어둠이 내리자, 너와 내가/받아먹은 놀과 어둠이/비빔밥처럼 안에서 비벼져/이름지을수 없는, 그윽한 뭔가가 되었지./이걸 뭐라고 불러야 하나?
>
> -「신성한 숲」부분(『얼음수도원』-30)

주지하다시피, 화이트헤드는 그의 유기체론에서 모든 관계가 한 존재의 현실적 계기로 작용한다는 생성의 사유를 설파한다. 그가 볼 때, 모든 개체는 다른 개체를 떠나서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위 시「신성한 숲」에서는 모든 관계가 한 존재의 현실적 계기로서 가능한 생성의 국면이 포착된다. 위 시에서 화자인 "나"와 "다복솔과 아카시아 철쭉과/자작나무"인 식물, 그리고 "몸을 낮추는 새들"은 서로 연결된 가운데 스스로의 존재를 발현한다. 또한 "보랏빛 어둠"에서 "보라"색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겹친 가운데 발현되는 색으로서 관계를 통해 출현하는 생성의 의미를 내장한다.

이때, "공양 받고 있는 너"에서 "공양"은 원래 불교사상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사상의 배타적 의미를 내장한다. 그러나 과정신학의 맥락에서 볼 때, 배타성을 함의한 이 용어는 극대화된 상호 작용의 관계성, 확대된 창조성의 의미를 낳는다. 이는 기도교사상의 교리적 실천이 적대적 대상에까지 존중과 공감을 표방하는 동시에 세상 모든 대상의 창조가 창조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위 시의 "공양"은 배타적 대상에까지 작용하는 창조주의 현존을 암시하는 것이다.

한편, "신성한 숲"의 "신성한"과 보라색이 내포하는 신비, 고귀함의 의미는 시의 맥락과 관련하여 창조주의 영성을 암시한다. 이 구절에서 창조주의 영성을 내장한 개체끼리의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 발현되는 생명현상의 의미가 포착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이름 지을 수 없는"과 "뭔가"라는 구절, 그리고 "너와 내가/받아먹은 놀과 어둠"이 맥락화되는 가운데 창조주의 영성적 작용에 대한 영감으로서의 관계성을 담지

한다. 이러한 논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지함으로써 믿는 자에게만 계시되는 창조주의 영성으로[35] 해석된다. 비가시적 상태에서 발현되는 창조주의 영성을 환기함으로써 창조주의 현존과 관계성이 도출되는 것이다.

다음 시 「범종소리」에서는 우주의 모든 대상과 현상, 매 순간이 관계의 현현이라는 사유가 포착된다.

> 새벽, 범종소리에 잠이 깼다./어둠의 귀」가 열려 그 소릴 깊게 빨아들인다, 문득/별빛을 덮고 잠들었던 내 안의 애욕과 권태,/온갖 허망과 환상들이/쇠와 나무가 마주쳐 내는 소리에 깜짝깜짝 살아나다/(… 중략 …)속이 빈 데서 울려나오는 저 소리엔 새 잎들이/피어날 것만 같다. 오죽(烏竹)의 눈부신 잎새처럼.
>
> - 「범종 소리」부분(『얼음수도원』-21-23)

위 시 「범종소리」에서 화자는 “범종소리”를 “어둠의 귀가 열려” “그 소릴 깊게 빨아들”이는 관계의 실현으로 인식한다. “범종”과 “귀”와 우주 공간은 모두가 하나의 현실적 계기로서 그것이 속한 현실의 세계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36] 사실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창조주를 통한 영성적 작용과 함께 현실적 존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자기 결정성을 환기한다. 피조물 자체에 내재된 생명이 주변 여건과 창조주의 영성에 영향을 받으며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신학의 초월적 신을 배격하며[37] ‘생성하는 신(a becoming

35) 발터 옌스・한스 큉, 김주연 역, 「근대의 개막과 종교」, 『문학과 종교』, 분도출판사, 1997, 23쪽 참조.

36)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유기체와 환경」, 앞의 책, 245-249쪽 참조.

37) 전통신학에서 볼 때, 창조주는 태초에 우주를 창조했고, 그 후 우주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창조주의 관여 없이 창조주가 부여한 자연법칙을 따라 작동한다. 이러한 이신론적 신관은 창조주를 대상화함으로써 별개의 존재로 이해한다. 생태주의자들은 이러한 창조주의 모델이 지배-피지배 구조를 고착화시킴으로써 생태계 파괴를 주도한다고 본다.

God)'을 제시하는 과정신학자들의 사유와 연결된다. 창조주가 세계 안에서의 현실태이며, 이를 기초로 물리적 법칙이 출현한다는[38]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현상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끼리의 현현(顯現)으로 불가할 뿐 아니라, 창조주의 단독적인 결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실적 존재자, 즉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성을 통해 자기 창조를 해 나갈 때, 창조주는 피조물의 창조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 창조자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위 시의 "속이 빈 데서 울려 나오는" 범종 "소리"는 비가시적 현상에 작용하는 창조주의 영성적 작용을 암시한다. 여기서 "소리"는 비가시적인 우주현상을 표상하며 그 모든 비가시적 현상은 인간에 의해 감지되고 인식되어져야 하는 수동적 상황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사실이 암시된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범종소리"는 근대 이후, 문자적 성경주의로 창조주를 탐색하기 전, 기독교사상의 창조 체험이 청각을 통해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39]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빈 데"는 청각을 통해 "귀가 열"리게 하는 매개체로서 세계와 연결되는 창조주의 영성으로 의미화된다. 화자가 말하는 "빈 데"는 창조주가 창조의 과정에서 영원한 객체들(eternal objects)과 관련되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40]

그러한 가운데 "눈부신 잎새"가 "피어날 것"이라는 비유는 창조주의 영성과 상호작용한 결과 발현되는 생명현상으로 해석된다. "별빛을 덮고 잠들었던 내 안의" "애욕과 권태/온갖 허망과 환상들"이 "쇠와 나무가 마주쳐 내는 소리"로 되살아난다는 표현은 창조주의 영성과 작용한 결과 현현되는 모든 개체와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

38)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사변철학」, 앞의 책, 66쪽.
39) 강정하, 「매튜 폭스의 창조영성에 근거한 생태신학」, 서강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7쪽 참조.
40) 화이트헤드, 류기종 역, 『종교와 신의 세계 : 과정신학의 기초원리』, 황소와 소나무, 2003, 129쪽.

다음 시 「칡」에서는 죽음과 생성의 관계성에 대한 사유가 포착된다.

> 바위들의 웅변은 침묵이다/그 침묵의 꽉 다문 입도 봉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칡은 제 몸에서 뽑아낸 푸른 밧줄로 적군을 묶듯, 혹은 염(殮)할 때 경직된 시신을 묶듯 바위들의 몸을 꽁꽁 묶기 시작했다//성큼, 여름이 오고 초록이 진군하자 집 뒤 바위산은 점령군, 칡의 세상이다 둥글게 둥글게 번져가며 끝장낸 초록의 염습은 감쪽같다 완벽하다/그 딴 세상! 칡은 바람을 불러 살랑살랑 고요의 씨앗을 흩날리고, 꽃을 피워 침묵의 향기를 퍼뜨린다//오늘 난 그 옆을 지나치다가 푸른 칡넝쿨 사이에서 구불텅구불텅거리는 꽃뱀을 보았다 그 고운 빛깔과 무늬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았다
>
> – 「칡」 전문(『거룩한 낭비』-27)

과정신학의 유기체적 생태계를 전제할 때, 모든 개체는 원초적으로 창조주에 의존하는 가운데 개체끼리 상호 의존한다.[41]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위 시 「칡」에서 암시되는 관계성은 주목된다. 우선 “제 몸에서 뽑아낸 푸른 밧줄”은 뻗어나가는 특성으로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현상을 암시한다. 나아가 그 “칡”이 얽어맬 수 있는 대상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생명현상을 가능케 하는 근원으로서 관계성의 의미를 낳는다. 생명현상의 표상인 “칡”은 무엇인가를 얽어맨 가운데 비로소 “고요의 씨앗을 흩날리고, 꽃을 피워 침묵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꽃’과 ‘꽃뱀’, ‘바위’, ‘고요’ 등을 환유의 기법으로 해석할 때, 이들은 식물과 동물, 무기물과 우주현상을 표상하며, 서로의 교호작용을 통해 가능한 생명현상의 의미를 창출한다. 이때, 다른 대상 사이의 관계 맺음은 관계되는 대상들의 관계의 힘, 즉 다른 존재의 힘을 요청하게 된다. 다른 존재의 힘은 창조주의 현존을 의미하며, “누설”과 “딴 세상!”으로 암시된다. 창조주로서 “누설”의 상징성을 전제할 때, “향기를 퍼뜨린

41)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신과 세계」, 앞의 책, 656-660쪽 참조.

다"든지 "고운 빛깔" 등은 창조주로부터 비롯되는 영성과 피조물의 작용으로 발현되는 생명현상의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나아가 "침묵의 꽉 다문 입"과 "염(殮)할 때 경직된 시신", "초록의 염습"은 죽음이나 소멸조차 관계성의 범주에 속함을 암시한다. 스스로를 결정하는 계기는 이미 자신을 위해 설정된 하나의 전망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런 설정은 새로운 계기의 위상 속에 주어진다는[42] 존재론적 관계성을 환기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개체가 소멸을 전제한 생성과 생성을 전제한 소멸의 대상이자 결과임을 반증한다. 모든 개체는 창조주의 현존을 통해, 다른 개체와 관계된 가운데 생성하고 소멸하는 관계성의 대상인 것이다.

이와 같이, 고진하 시에서 모든 대상과 현상의 현현이 서로 관계된 가운데 창조주의 현존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논의되었다. 그의 시에서 생태계 내 모든 개체는 창조주의 현존을 통해 상호 침투하며 스스로의 생명현상을 발현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생태계 전체가 창조주의 영성적 작용을 통해 생명현상을 발현한다는 사유로서 기독교사상을 통한 심층생태주의의 관계성이 도출된 것이다.

3. 비선형적 생성과 복잡성

과정신학의 생태계 이해는 생태계 자체를 생성의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과 닿는다.[43] 심층생태주의에서 표방하는 복

---

42)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범주의 도식」, 위의 책, 85-92쪽 참조.

43) 심층생태주의자들은 생태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생태계의 유기체적 특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생태계의 원리인 전체 장으로서의 상호 연관으로서 복잡성을 강조한다.
Arne Naess, David Rothenberg Trans, & Ed,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 197-200.

잡성은 물질과 빗물질의 전일적 관계를 이해하는 생명현상의 원리를 의미한다. 생태계의 원리를 뜻하는 복잡성은 단순성과는 대조적으로 생태계 내 구성원들의 관계가 불확실성・예측불가능성・미결정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심층생태주의의 복잡성과 과정신학은 생명현상을 '유기체'와 '과정', '생성'의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만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생태계에 드러난 질서와 숨은 질서가 섞여 있으며, 그 속에서 많은 동・식물, 사물과 현상들이 상호 연접하며 생성한다는[44] 사실을 환기한다. 생명현상은 비선형적 특성으로서 복잡성을 담지하며, 그러한 가운데 존재하는 한 개체의 경계는 전체 생태계와 경계가 없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고진하 시에서 비선형적 복잡성은 생성의 근원으로서의 특성, 비인과적 생성, 끊임없이 진행되는 생성과 소멸의 특성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논의가 창조주의 영성과 관련된다고 볼 때, 강기택이 인용한 마조리 스와키의 다음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하느님은 매 순간 세계를 실존으로 부르고 계시는 창조주이시다. 하지만 하느님은 세계와 동떨어져서가 아닌 세계와 함께 창조하신다. 세계는 과거와 하느님의 미래를 생성되는 자신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매 순간 새로운 것을 창발하며, 일종의 '하느님과 함께 창조적인 춤'(a creative dance with God)을 추는 관계를 맺는다.[45]

위 글에서 스와키는 창조주가 "매순간 세계를 실존으로 부"름으로써

---

44) 김상일, 「과정 철학의 성격과 방법」,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 서광사, 1993, 40쪽.

45) Marjorie H. Suchocki, *What is Process Theology?* p. 7-8.(New York : Crossroad, 1982)(강기택,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신론에 대한 과정신학적 비평-창조론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59쪽에서 재인용)

세계를 “창조”한다고 주장한다. 창조주는 “세계”를 “부르”는 행위로서 “창조하”며, “세계는 과거와 창조주의 미래를 자신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생명현상을 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사유를 “하느님과 함께 창조적인 춤(a creative dance with God)”을 춘다고 표현한다. 모든 개체는 창조주의 영성적 작용을 통해 현현되며, 존재(Being)가 아닌 과정(Becoming)으로서의 생성을 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창조주와 인간의 공동창조성을 통해 발현되는 비선형적 생성을 환기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비선형의 특성을 통한 생성의 의미는 복잡성을 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생태계의 원리인 복잡성이 창조주의 영성적 작용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음 시 「자연」에서는 공간의 생성적 특성으로서 복잡성이 논의된다.

> 나뭇잎 두 장을 이어붙인/나뭇잎 접시.//거기 흰밥을 담아주었다/거기 찐 콩을 담아주었다/거기 야채카레를 담아주었다//그걸 숟갈 대신 손으로/비비고 또 비비는데//거기 햇살도 듬뿍 얹어주었다/거기 맑은 공기도 섞어주었다/거기 청량한 새소리도 얹어주었다
>
> -「자연」부분(『꽃 먹는 소』-16-17)

위 시의 장소인 ‘인도’는 힌두교의 발상지로서 전통신학과 상반됨의 의미를 내장한다. 그러한 가운데 ‘인도’는 ‘자연’이라는 표제와 결합됨으로써 배제되는 바가 없는 창조주의 창조물로 의미화된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창조주’ 또는 ‘창조’라는 말 대신 ‘생명 및 자연’이란 말을 사용하는 과정신학자 존 캅의 발언은[46] ‘인도’가 창조주의 창조물로서 ‘자연’임을 환기한다. 그의 발언을 전제할 때, 위 시의 표제 「자연」은 ‘인도’가 암시하는 비선형성을 암시함으로써 복잡성의 의미를 창출하는 것이다.

---

46) J. Cobb, “The Role of Theology of Nature in Church”, *Liberation Life Contemporary Approach to Ecological Theoloty,* S. Mcfague(ed.)(New York, 1990, pp. 216-276)(이정배, 「유교적 자연관과 생태학적 인간」,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108쪽에서 재인용)

한편, 위 시에서 현지인들이 화자에게 “흰밥”을 “담아” 건네주는 상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되는 “흰밥”은 자연의 힘과 타자의 노동력이 관계된 집적물을 암시한다. “담아”준다는 표현에서는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이 암시된다. 화자는 “거기 흰밥을 담아” 주고 “거기 찐 콩을 담아” 주고, “거기 야채카레를 담아” 준다고 발화한다. 반복되는 “거기”에서 포착되는 사유는 애매성으로 볼 수 있다. 상호 작용과 비인과적인 생성을 통해 복잡성이 도출된 것이다.

또한 “흰밥”과 “찐 콩 야채카레”를 “손으로/비비고 또 비”빈다든지 “섞어”준다는 구절은 비가역적 의미를 낳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아가 “햇살도 듬뿍 얹어주”고 “맑은 공기도 섞어주”고 “청량한 새소리도 얹어” 준다는 표현은 역동적인 조화와 균형의 의미를 낳는다. “햇살”이나 “공기”, “새소리”는 모두 계량할 수 없다는 속성에서 비가역성이 포착되며, “듬뿍”, “맑은” “청량한” 역시 가늠할 수 없는 속성으로서 마찬가지의 의미를 낳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 하나하나가 전체의 부분들을 강조해주는 방식으로 전체에 이바지함으로써 복잡성의 의미를 낳는다. 인간과 동물, 식물, 무기물의 상호작용과 함께 창조주의 영성적 작용을 통한 복잡성이 창출되는 것이다.

다음 시 「하늘 다람쥐」에서는 비인과적 특성으로서의 생성이 발견된다.

> 깊은 산을 다니다보면 한 군데 소복하게 돋아난 어린 단풍나무들을 가끔씩 볼 수 있지. 다람쥐 짓이야. 늦가을 단풍씨앗들을 물어다 겨울 양식으로 저만 아는 은밀한 곳에 묻어두는데, 기억력이 별로 좋지 못한 이 다람쥐란 녀석,(… 중략 …)겨울이 다가와 먹을 것이 궁해진 이 다람쥐란 녀석, 가을에 저장해놓은 단풍씨앗을 찾으려 해도 제 눈으로 점찍어 둔 구름은 이미 흘러가버렸으니 결국 단풍씨앗을 찾지 못하고 마는데, 혹자는 이런 다람쥐를 일러 어리숙한 즘생이라 말하리. 하지만 그 어리숙함이 이듬해 봄 다람쥐가 찾지 못한 씨앗들을 싹트게 하여 여러 그루의 단풍나무를 솟아나게 하니! 금강석보다 귀한 생명의 씨앗을 염

주알 같은 눈망울에 담아 영원한 망각의 구름 위에다 소유권을 표시해 두는 어리숙한 다람쥐여, 그 천진한 눈망울 속에 이미 깃들인 푸른, 푸른 잎의 단풍이여!

-「하늘 다람쥐」부분(『우주배꼽』-60)

위 시에서 “다람쥐의 천진한 눈망울 속에 이미 깃들인 푸른, 푸른 잎의 단풍” 역시 인과성을 알 수 없다는 사실로서 비선형적 생성의 의미를 창출한다. 원래 모든 개체의 생성은 다른 개체와 창조주의 영성이 작용한 결과 발현되는 생명현상으로서 인과 관계를 알 수 없는 우연적 요소를 담지한다. 우연성의 이러한 특징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물리적 영역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복잡성의 의미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산 속의 다람쥐들이 “단풍씨앗들을 물어다 겨울 양식으로 저만 아는 은밀한 곳에 묻어 두”었다가 “씨앗을 찾”지 못한 결과 “단풍나무 숲”이 조성되었다는 표현에서도 포착된다. 유형과 무형의 중간 세계를 암시하는 “구름”의 생명성과 “다람쥐”의 “어리숙한” 행위 속에 깃든 생명성의 결합은 인과를 알 수 없는 우연성의 특성으로서 비선형적 생성과 복잡성의 의미를 낳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어떤 개체든 생명현상의 과정에서 다른 개체들에 의해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그러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자기 예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우연의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47] 의미로 귀결된다. 생명현상이란 원래부터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개체와 현상의 역동적 그물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좀더 근원적인 데에서도 발견된다. “어리숙한 다람쥐”의 “염주알 같은 눈망울” 속에 이미 “푸른 잎”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씨앗” 전에 잠재된 원초적 생명성으로서 어떠한 것도 그것이

47) 존 캅, 김희헌 역,「과정신학이란 무엇인가?」,『신학연구』55집,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2009, 232쪽 참조.

속한 현실의 세계에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그와 함께 모든 개체는 과거와 미래로부터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모든 개체나 계기, 상황은 서로 관련된 가운데 인과 관계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다음 시 「토지문학공원 5」에서는 부패와 소멸의 상황에서 발현되는 복잡성의 생성이 발견된다.

> 인공 강우는 언제 멎었을까./바짝 말라붙은 섬진강,/움푹움푹 패인 몇 개의 웅덩이에/고인 물이 썩고 있다./바위도 자갈들도 썩는지 거무튀튀하다./이름뿐인 강, 그렇지만/이름 그대로 나그네인 나는/정처 없는 이 발길을 멈추지 못한다./해꽃 피고 지고 버들잎 지고 피는/정처 없는 이 흐름을/난 무어라고 명명할지 모르겠다./내 안의 스승은 여명(黎明)의 지식으로/날 가르치셨다./손으로 움켜쥔 것은 모두 썩는다./이름뿐인 강, 그렇지만/고여 썩은 물은 환한 거울이다./거울에 비친 것은 모두 썩는다./스승이시다./그걸로 충분하다.
>
> – 「토지문학공원 5」 전문(『얼음수도원』-35)

위 시의 공간인 “토지문학공원”은 인위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인간중심주의의 세계를 표상한다. “인공강우”는 좀더 극대화된 인간중심주의의 산물로서 과학기술을 상징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바짝 말라 붙”어 “고인 물이 썩고 있”는 “웅덩이”와 “강”은 인간 스스로 파괴해버린 작금의 생태계로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나그네”로 비유된 인간이 “정처 없”음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비유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개발로 극심하게 파괴된 생태계와 그럼에도 개발을 중지하지 못하는 인류의 딜레마를 환기한다. 딜레마적 상황은 인간이 거주하는 생태계가 비선형적 복잡성의 담지체임을 상징한다.

한편, 강을 비롯해 “고인 물”과 “바위”와 “자갈들”은 영성을 담지한 자연으로서 창조주의 창조물로 간주된다. 여기서 창조주의 창조물은 죄가 없으나 인간의 죄를 암시하는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

는 사실이 암시된다. 그러한 가운데 “썩”고 있는 “강”에서도 “해꽃 피고 지고 버들잎 지고” 피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도 창조주가 내재하는 ‘성소(고전 3: 16)’라는 의미를 담지한다. 이때, 암시되는 ‘숨어 있는 창조주’와 ‘생성하는 창조주’는 비가시적, 비선형적인 가운데 작용하는 창조주의 영성을 환기한다.[48]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작용하는 생명현상의 상대성, 비선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몰트만의 사유에서 두드러진다. 그는 피조물의 상호작용 자체를 ‘세상 안에 계신 창조주, 창조주 안에 있는 세상’으로 인식한 것이다.[49] 이는 어떠한 원인이 작용하여 무엇을 발생시켰는지 모르는 가운데 생명현상이 발현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창조주의 영성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썩”고 있어 “이름 뿐인 강”이지만 썩는다는 사실이 바로 “스승”이며 “그걸로 충분”하다는 발언은 ‘초월적 성소’라는 의미를 넘어 생명현상의 어떠한 상황도 창조주의 영성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 ‘성소’로서의 복잡성으로 의미화하는 것이다.

다음 시 「거룩한 낭비」에서는 끊임없는 생성의 특성으로서 복잡성이 포착된다.

> 이 휘황한 물질적 낙원에서/하느님/당신은 도무지/소용없고/소용없고/소용없는/분이시니//내 어찌/흔해빠진/공기를 낭비하듯/꽃향기를 낭비하듯/당신을/낭비하지 /않을 수/있으리오!
>
> -「거룩한 낭비」전문(『거룩한 낭비』52)

---

48) J. Polkinghorne, *The Science and Christian Belief: Theological Reflections fo a Bottom-up Thinker*. London: SPCK. 1994. p. 167.(이상현, 「과학적 실재관에 대한 폴킹혼의 유신론적 이해」,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146쪽에서 재인용)

49) “생명의 영, 이것은 무엇보다도 피조물의 연관성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영과 마찬가지로 새 창조의 영도 인간들 사이에서 그러하듯이 인간과 모든 다른 생명체 사이에서 생명의 사귐을 회복합니다.”
J, 몰트만, 이신건 역, 앞의 책, 40쪽 참조.

주지하다시피, 과정신학자들은 전통신학에서 성서를 정확하게 계승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성서적 세계상이 제시한 인간과 자연의 공동 운명성에 초점을 둔다. 그들이 판단하기에 성서에서 강조하는 창조주의 능력은 전능성(omnipotence)이 아닌 설득적인 힘이다.[50] 그들은 생태계 내 모든 대상과 상황에 작용하는 창조주의 영성과 과정 지향적인 창조주의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폴킹혼은 생명현상의 매 순간에 작용하는 생성으로서의 창조주를 강조한다.[51] 창조주의 응답적, 설득적인 사랑을 통해 새로운 질서가 창출된다는 것이다.[52] 이러한 논의와 고진하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위 시에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낭비"는 기도를 통해 작용하는 창조주와 그로 인해 가능한 생명현상의 논의를 낳는다.

여기서 기도의 특징이 창조주와 소통함으로써 역동적 창조를 지향한다고 볼 때, "당신"을 "낭비"한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변화 생성하는 생명현상의 의미를 증폭시킨다. 특히, "당신을/낭비하지/않을 수/있으리오?"라는 구절은 "낭비"와 "당신"의 이질적인 결합으로 인해 생성하는 카오스적 아우라, 즉 비선형적 생성의 의미를 창출한다. 이러한 논의는 생명현상의 강조점이 초월적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 숭배가 아니라 창조주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라는 사실로서 복잡성의 의미를 낳는다.

이와 같이 고진하 시에서는 창조주의 영성을 통한 생명현상의 특징으로서 비선형적 생성을 통한 복잡성이 도출된다. 생태계 내 모든 생명현

---

50) 이정배, 「역사와 자연을 넘어 생명으로」, 『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22쪽.

51) J. Polkinghorne, Serious *Talk - Science and Religion in Dialogue,* Trinity Press, 1995, p. 64(이정배, 「폴킹혼(J. Polkinghorne)의 공명론과 유신론적 자연신학 연구」, 組織神學論叢』, 한국조직신학회, 2003, 51쪽에서 재인용)

52) 존 캅·데이비드 그리핀, 이경호 역, 『캅과 그리핀의 과정신학』, 이문출판사, 2012, 113쪽 참조.

상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현상들이 서로 연접하면서 발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창조주가 초월적이거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성하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그의 시에서 창조주는 피조물에 작용하며 새로운 생성을 추동하는 상호작용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창조적 변형과 순환성

현시적인 모든 생명체의 생명현상은 변형(transformation)을 수반하게 된다.[53]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생명현상의 과정에서 모든 개체가 이행을 통해 창조적 변형의 계기를 맞이한다는 화이트헤드의 사유는 신생곧 새생명의 출현이 창조주가 신생을 자극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논의를 환기한다.[54] 이는 생명현상의 전 과정에 적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생성을 추동하는 죽음의 의미가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암시되며, 종말에 일어날 일과 새로운 시작이 될 어떤 것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는[55]발언은 주목된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죽음과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생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56]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기독교사상을 내장한 심층생태주의의 순환성으로 정초된다. 창조적 변형을 통한 순환성은 잠재성의 순환성, 과정으로서의 순환성, 생성을 전제한 소멸의 순환성으로 나타난다.

다음 시 「새가 된 꽃, 박주가리」에서는 잠재성의 순환성이 포착된다.

---

53)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변형」, 앞의 책, 597쪽.
54) 존 캅・데이비드 그리핀, 이경호 역, 앞의 책, 118-119쪽 참조.
55) J. Polkinghorne, and M. Welker (edit.), *op. cit.,* p. 8.(정성민, 앞의 논문, 260쪽에서 재인용)
56) J. Polkinghorne, *Serious Talk*. Philadelphia: Triity Press International. 1995. (이상현, 앞의 논문, 140쪽에서 재인용)

어떤 이가/새가 된 꽃이라며,/새가 아닌 박주가리 꽃씨를 가져다주었다/귀한 선물이라 두 손으로 받아/계란 껍질보다 두꺼운 껍질을 조심히 열어젖혔다/놀라웠다/나도 몰래 눈이 휘둥그레졌다/새가 아닌 박주가리 꽃의/새가 되고 싶은 꿈이 고이 포개어져 있었다/그건 문자 그대로, 꿈이었다/바람이 휙 불면 날아가 버릴 꿈의 씨앗이/깃털의 가벼움에 싸여 있었다/하지만 꿈이 아닌,/꿈의 씨앗도 아닌 박주가리의 생(生),

- 「새가 된 꽃, 박주가리」부분(『얼음수도원』-46-47)

전통신학자들이 볼 때, 최초의 창조와 타락 이후를 말하는 구속으로서의 창조는 구분된다. 반면 과정신학자들은 최초의 창조와 부활 이후의 창조를 생명현상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 변화로 인식한다. 태초의 창조 뿐 아니라 생명현상의 과정 전체를 창조로 보는 것이다. 이때, 지속적 창조의 원천은 창조주의 영성적 작용이다. 생성과 소멸을 통한 변증법적 생명현상은 순환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각 개체들이 생명발현의 과정에서 서로를 내재적으로 전제함으로써 그들의 구조에 들어 있는 어떤 요소는 제거하되 어떤 요소는 관련성 속으로 끌어들이며 변화와 생성을 지향한다는[57] 사실을 환기한다. 모든 세포들은 전일성을 이루려는 창조 운동과 함께 더 높은 단계로 자신을 고양시키고자 변화 생성하는 과정을 노정하는 것이다. 과정신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창조물 스스로의 의지와 함께 창조주의 의지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본다.[58] 더 높은 상태를 추구하는 개체의 개별 의지와 그러한 경험의 출현을 가능케 하는 창조주의 영성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59]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위 시에서 화자가 인식하는 “씨앗”의 의미

57)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 「과정」, 앞의 책, 424쪽 참조.
58) 진태원, 「변용과 연관의 인과론」, 『헤겔연구』, 한국헤겔학회, 2010, 219쪽 참조.
59) 양자물리학자 폴킹혼은 자기조직화하는 우주의 원리를 창조주로부터의 정보 입력(Active information)으로 인한 현상으로 인식하며, ‘위로부터의 목적인’(top-down Agency)이라 부른다.
J. 폴킹혼, 이정배 역, 『과학시대의 신론』, 동명사, 1999, 66-69쪽 참조.

는 주목된다. 원래 “씨앗”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힘, 즉 생명력을 상징한다.[60] 생성되기 전 씨앗 상태의 생명은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내장한 무(無)로서[61] 창조적 변형의 의지를 내장한 담지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꿈이 아닌,/꿈의 씨앗도 아닌 박주가리의 생(生)”은 존재의 높은 상태로 나아가려는 “새”의 상징성을[62] 담지함으로써 생명현상의 진화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베르그송은 그의 저서『창조적 진화』 2장에서 생명의 두 형식, 즉 식물과 동물을 가르는 형질들을 찾기 힘들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한다. 그가 볼 때, 식물에 동물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동물에도 식물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는 생명의 영역을 가르는 방식이 그것들의 현실적 상태가 아니라 잠재적 경향들, 즉 한 생명의 형식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성이 점점 더 강한 경향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63]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위 시의 “박주가리 꽃”은 식물성이 두드러지는 동・식물의 잠재태이며, “박주가리 꽃”의 의지는 동물인 “새가 되”는 데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가 아닌 박주가리 꽃의/새가 되고 싶은 꿈”은 창발적 생성으로서 진화적 순환성의 의미를 낳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각 개체의 물질이 다른 물질 속에서 순환한다는 사실과 함께 창조적 진화를 암시한다. 위 시에서 신생 곧 “새”가 되고자 하는 “박주가리”의 꿈은 “새”와 “박주가리”로 표상된 자연의 자연성으로서 식물에서 동물로의 형태변이를 지향하는 순환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 시「월식」에서는 소멸을 내장한 과정으로서의 순환성이 형상화된다.

---

60) 이승훈,『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351쪽.
61) 김광율 외 6인,『현대인과 성서』, 도서출판 이화, 2003, 20쪽.
62) 이승훈, 앞의 책, 278쪽.
63) 키스 안셀 피어슨, 이정우 역,「차이와 반복」,『싹트는 생명』, 산해, 2005, 93쪽 참조.

> 쳐진 진흙덩어리, 오늘 네가/물방울 맺힌 욕실 거울 속에서 본 것이다./십수년 전의 환한 달덩이 같은 얼굴이 아니다.//푸석푸석 부서져 내리는/진흙 가면(假面), 그걸 볼 수 있는 눈을/지니고 있다는 것이 퍽 대견스럽다./하지만, 여름 나무가 푸른 잎사귀에 둘러싸여 있듯/그걸 미리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은/너의 한계,/너의 슬픔,//오래전, 너의 출생과 함께 시작된/개기 월식은 지금도 진행중./드물지만 현명한 이는 그래서 매일 죽는다./그리고 안다. 죽어야/어둠 속에서 연인(戀人)의 달콤한 입술이 열린다는 것을.
>
> – 「월식」부분(『얼음수도원』-14-15)

논의해 온 바와 같이, '부활사건'과 관련하여 소멸은 창발적 생성의 계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는 샤르댕의 사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세상 전체를 고정된 실재로서가 아니라 변형 과정의 덩어리로 보며, 세상 전체를 물질의 진화라는 말로 표현한다.[64] 그의 사유가 기독교 사상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 이는 창조주에 의한 생태계의 자기조직화라는 의미를 낳는다.[65] 부활사건의 상징성은 생성을 추동하는 죽음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는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체의 해체와 소멸이 생명현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조적 변형의 과정이자 전체 생태계의 자기조직화라는 사실을 뜻한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위 시에서 "진흙덩어리"로 비유된 화자 자신에 대한 표현은 주목된다. 화자는 자신을 "푸석푸석 부서져 내리는/진흙 가면(假面), 그걸 볼 수 있는 눈을/지니고 있다는 것이 퍽 대견스럽다"로 표현한 것이다. "진흙덩어리"에서 암시되는 해체와 소멸은 전체 생태계의 생명현상과 관련한 자기조직화의 비유로 해석이 가능하다. "진흙덩어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용해와 재생이라는 상징성을 담지하

64) 테이야르 드 샤르댕, 양명수 역, 「우주의 바탕」, 『인간현상』, 한길사, 1997, 56쪽 참조.
65) J. 폴킹혼, 우종학 역, 『쿼크, 카오스 그리고 기독교』, SFC 출판부, 2009, 65쪽 참조.

는 동시에[66] 소멸의 불멸성에 대한 엔트로피적 인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인식된 창조주의 영성은 창조적 변형의 작용인으로 의미화된다. 해체와 소멸을 통해 출현하는 생성이 창조주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시에서 "죽어야/어둠 속에서 연인(戀人)의 달콤한 입술이 열린다"는 표현은 최종 수렴점을 향해 창발적으로 진행하는 생명체의 진화적 국면으로[67] 해석이 가능하다. 과거를 현재에 포함하면서도 현재를 창조적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화육적으로 활동하는 창조주와 피조세계,[68] 즉 생태계의 생명현상을 의미하는 하는 것이다.

다음 시 「네 부재의 하모니카」에서는 무(無), 즉 비가시적 현상과 관련한 생명체의 상호 순환성이 형상화된다.

> 히말라야의 고요에서 왔다고 했던가/어디로 갈 참이니, 물었더니/꽃미소 흘리며 람(신)에게로 간다고 했던가/혼잣말하듯 겨우 대답하는 입술 위로/후드득 떨어지는 빗방울이 튕겨져 나왔던가//오늘 너 없는 풍경의 분주를 바라보다가/네 부재의 향기를 하모니카로 불다가/오래 살려 버둥거리는 일보다/더 큰 재앙은 없다는 바람의 푸른 말씀을/나뭇잎 수첩에 받아 적다가/멸(滅), 멸의 낙법을 가르치는/스콜(아열대 지방에 내리는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의 난타를/웅덩이 악보 위에 그리다가
>
> - 「네 부재의 향기를 하모니카로 불다」부분(『꽃 먹는 소』-94-95)

생태계를 생명현상의 과정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개체들이 한시적 운명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생성 변화하는 생태계 속에서 생명현상을 발현하는 모든 개체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활사건과 관련하여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한 논의는 광범위하

66) 이승훈, 앞의 책, 191쪽.
67) 테이야르 드 샤르댕, 양명수 역, 『인간현상』, 한실사, 1997.
68) 존 캅・데이비드 그리핀, 이경호 역, 앞의 책, 120쪽 참조.

게 적용된다. 몰트만은 순환성과 관련하여 창조주가 새로운 가능성의 작용인이며, 창조주의 부활사건을 통해 암시된다고 주장함으로써[69]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그가 볼 때, 부활사건은 생태계 내 각 생명체가 새로운 생성으로 나아가는 계기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위 시에서 "빗방울"은 생명의 순환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를 표상하는 "빗방울"은 정화와 변형의 의미를 내포함으로써[70] 기체와 고체, 혹은 비정형과 정형 사이를 매개하는 물질임을 알 수 있다. 위 시에서 "빗방울"은 역동적인 변화와 지속의 의미를 담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시에서 "빗방울"은 생명체의 순환성이라는 점에서 생태계 내 모든 개체의 생명현상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위 시에서 "오래 살려 버둥거리는 일보다/더 큰 재앙은 없다"는 화자의 발언은 주목된다. 생태계와 개체의 실재를 창조주의 창조 섭리에 의한 필연성으로 이해할 때, "멸(滅)의 낙법"에서 암시되는 죽음은 창발적 생성의 계기로 의미화되기 때문이다. 소멸을 추동하는 창조주의 영성적 작용이 새로운 창발적 생성의 작용인이라고 본다면,[71] "멸(滅)의 낙법을 가르치는 스콜(아열대 지방에 내리는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의 난타"는 새로운 생성을 향한 창발적 계기로 해석되는 것이다.

다음 시 「어머니의 총기」에서도 죽음을 통한 창조적 변형의 순환성이 그려진다.

> 영혼의 머리카락까지 하얗게 센 듯싶은/팔순의 어머니는//뜰의 잡풀을 뽑으시다가/마루의 먼지를 훔치시다가/손주와 함께 찬밥을 물에 말

69) J. 몰트만, 김균진 역, 『창조 안에 계신 하느님』, 300쪽 참조.
70) 이승훈, 앞의 책, 241쪽.
71) J. Polkinghorne, *Science and Theology: An Introduction,* London: SPCK, 1998. p.43.(이상현, 앞의 논문, 131쪽에서 재인용)

아 잡수시다가/먼산을 넋놓고 바라보시다가//무슨 노여움도 없이/고만 죽어야지, 죽어야지/습관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이젠 섭섭지 않다//치매에 걸린 세상은/죽음도 붕괴도 잊고 멈추지 못하는 기관차처럼/죽음의 속도로/어디론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마른풀처럼 시들며 기어이 돌아갈 때를 기억하신/팔순 어머니의 총기(聰氣)!

- 「어머니의 총기」전문(『얼음수도원』-54)

서남동이 번역한 깁스의 바울 이해에서도 부활사건을 통한 계속적 창조의 사유가 포착된다.[72] 깁스는 죽음을 계속적 창조의 근원으로 인식하며, 순환성을 전제하는 변형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제할 때, 화자의 "치매에 걸린 세상"이라는 발언은 주목된다. 그가 말하는 "죽음도 붕괴도 잊고 멈추지 못하는 기관차"는 죽음에 내장된 생성의 의미를 환기하기 때문이다. "죽음도 붕괴도 잊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기관차처럼" 인간중심주의를 표방하는 과학기술은 죽을 줄 모르는 "치매"의 속성으로 죽음의 원리에 내장된 창조의 에너지를 파괴함으로써 생태계의 순환성에 문제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위 시 「어머니의 총기」에서 표제가 '어머니의 총기'라는 사실은 주목된다. 위 시에서 "팔순" 노모의 "고만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는 발화는 부활사건의 상징성과 관련하여 자신인 자연에 대한 믿음으로 맥락화된다. 화자가 이러한 모친의 발언을 "섭섭치

72)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義)(δικαιοσύνη Θεού)인 바, 그 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느님의 한 백성(롬 9-11)으로 연결하는 의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민을 위한 '풍성한' 은총의 의이며, 창조를 부패시키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의다(롬 8: 21). 세계의 시초의 상태도 아니고, 인류의 원초적 무구(無垢) 상태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박힌 자의 부활이 인간 역사의 향방, 나아가서는 우주적 운명의 방향을 계시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단지 신화적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과 사업의 기본 맥락적인 실재이며 (전)창조를 그에게로 끌어 당기는 힘인 목표다"
John. G. Gibbs, 서남동 역, 「바울신학의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생태학적 위기」, 『신학 사상』 2집, 1973, 213쪽.

않"다고 인식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오히려 자신인 자연으로 "기어이 돌아갈 때를 기억하"는 "어머니의 총기(聰氣)!"는 죽을 줄 아는 사멸의 존재로서 순환성을 환기하는 것이다.

이는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서 순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태주의의 메시지를 환기한다. "어머니"의 죽음은 부활사건의 상징성을 통해 순환성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이는 단지 죽음이 종말의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속되는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현상의 국면이라는 원리를 환기한다. 위 시에서 모친의 발언은 부활사건과 관련하여 죽음이야말로 다가올 물질의 세계 안에서 다시 생성할 수 있는 새창조, 순환성을 내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진하 시에 나타나는 순환성은 생명현상의 과정 그 자체가 죽음과 소멸을 담지한 자체 내적인 영향의 자기조직화라는 사실을 환기한다. 또한 그의 시에서 생태계의 개체적 존재, 생태계 전체의 죽음과 소멸은 부활사건의 상징성을 통해 창조적 변형을 통한 순환성으로 의미화된다. 그의 시에서 생명현상의 모든 국면은 부활사건의 상징성을 내장한 순환성 그 자체인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고진하의 후기시에서 기독교사상의 심층생태주의가 도출되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창조주는 초월적 신이 아니며 생태계 내 각 개체와 전체의 관계성, 복잡성, 순환성을 추동하는 생성의 에너지로 파악되었다. 고진하 시에서 창조주의 내재를 전제한 생명현상의 유기체적 특성이 기독교사상의 심층생태주의로 논의된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M. 에크하르트, J. 몰트만, 존 캅, 서남동, 샤르댕, 장회익 등 여러 신학자와 양자물리학자인 J. 폴킹혼의 이론을 통해 도출되었

다. 고진하 시에서 창조주의 현존과 관계성, 비선형적 생성과 복잡성, 창조적 변형과 순환성이 논의된 것이다.

먼저 그의 시에서 생태계 내 각 개체들은 창조주의 영성을 통해 상호작용함으로써 생명현상을 발현한다는 관계성의 사유가 추출되었다. 그의 창조주에 대한 인식은 초월적 신관이 의미하는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고진하 시에서 암시되는 창조주는 동·식물, 무기물 그리고 우주현상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한 가운데 각 개체와 개체끼리 상호작용하며 생명현상을 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비선형적 생성과 복잡성의 논의로 이어졌다. 고진하 시에서 각 개체와 전체 생태계의 생명현상은 미결정성·불확실성·비선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각 개체의 변화와 생성은 창조주의 영성이 내재한 가운데 다른 개체의 변화와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성을 알 수 없으며, 그럼으로써 인간중심주의와 배치된다. 각 개체와 전체 생태계의 생명현상은 공간의 생성, 비인과적 생성 등 비선형적 생성을 노정하는 가운데 복잡성이 도출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진하 시에서 창조적 변형과 순환성이 논의되었다. 그의 시에서 생명현상의 모든 국면은 새로운 생성을 위한 비전의 계기를 담지한다. 이러한 사유는 죽음을 사유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그의 시에서 모든 개체의 죽음과 소멸은 생성을 추동하는 특성으로써 과학기술, 개발이 내포한 이원론에 대응한 의미를 갖는다. 부활사건의 상징성은 생명현상의 모든 국면을 창발적 생성의 계기로 의미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고진하의 후기시를 고찰한 결과 그의 시에 내장된 궁극의 사유가 기독교사상의 심층생태주의라는 점을 밝혀내었다. 고진하 시에서 형상화된 생태계의 모든 개체와 개체는 창조주의 영성을 통한 상호 작용 속에서 생명현상을 발현하며, 복잡성의 과정 속에서 창조적 변형과 순환성을 노정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고진하 시를 대상으로 만유재신론이나 종교다원주의적 생태주

의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를 통한 생태주의가 기독교 사상의 독자적 의미로 귀결되지는 못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고진하 시를 대상으로 기독교사상의 심층생태주의를 도출했다. 그 결과 기독교사상이 생태계 파괴를 유발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고진하 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생태주의 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진하,『우주배꼽』, 세계사, 1997.
_____,『얼음수도원』, 민음사, 2001.
_____,『수탉』, 민음사, 2005.
_____,『거룩한 낭비』, 뿔, 2011.
_____,『꽃 먹는 소』, 문예중앙, 2013.

_____,「무신(無神) 시대의 하나님 신앙」,『새가정』440호, 새가정사, 1993, 11월호, 38-39쪽
_____,「시적(詩的) 상상력과 영성」『세계의 신학』33집, 1996, 57쪽.

강기택,「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의 신론에 대한 과정신학적 비평-창조론을 중심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강정하,「매튜 폭스의 창조영성에 근거한 생태신학」, 서강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길희성,「종교다원주의」,『종교연구』28호, 한국종교학회, 2002, 7쪽.
_____,『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 사상』, 분도출판사, 2003.
_____,「동서양의 영성 전통과 현대 영성의 과제」,『서강인문논총』제21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273-289쪽.
김광율 외 6인,『현대인과 성서』, 도서출판 이화, 2003.
김기석,「이곳과 저곳 사이의 서성거림」,『우주배꼽』, 세계사, 1997, 95-110쪽.
김동명,「고진하 시에 나타난 만유재신론적 생태주의 연구」,『한국문학논총』65집, 한국문학회, 2013, 373-411쪽.
_____,「이성선과 고진하 시에 나타난 복잡성 비교연구-화엄사상과 과정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58집, 현대문

학이론학회, 2014, 95-125쪽.
김문주, 「느림의 문화와 기독교 영성-고진하의 시를 중심으로」, 『어문논집』56, 민족어문학회, 2007, 207-230쪽.
김상일, 『화이트헤드와 동양철학』, 서광사, 1993.
김양헌, 「편재론적 상상력, 눈부신 신성의 낯설음」, 『서정시학』, 깊은샘, 7, 1997, 120-129쪽.
김형태, 「고진하 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홍진, 「고진하 시의 종교적 상상력 연구」, 『현대문예비평연구』 제38집, 2012, 137-163쪽.
나희덕, 「시적 상상력과 종교다원주의」,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04, 27-49쪽.
남송우, 『생명시학 터닦기』, 부경대학교출판부, 2010.
남진우, 『그리고 신은 시인을 창조했다』, 문학동네, 2001.
신옥수, 「몰트만의 "우주적 성령" 이해」, 『장신논단』 26집, 2006, 232쪽.
엄국현, 「경계적 인간의 탐색의 노래」, 『서정시학』 7집, 깊은샘, 1997, 70-87쪽.
유성호, 「신이 부재한 시대의 '신성' 발견」, 『유심』 7집, 2001. 겨울, 315-325쪽.
_____, 「다시 '빈 들'에서, '시'를 사유하다」, 『거룩한 낭비』, 뿔, 2011, 115-126쪽.
윤성희, 「지상에서 천상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 『서정시학』 7집, 깊은샘, 1997, 88-101쪽.
윤철호, 「변증법적 만유재신론」, 『장신논단』 28집,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07, 65-94쪽.
이경호, 「견성의 시학」, 『프란체스코의 새들』, 문학과지성사, 1993, 95 - 113쪽.
이상현, 「과학적 실재관에 대한 폴킹혼의 유신론적 이해」,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승훈,『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이정배,『신학의 생명화 신학의 영성화』, 대한기독교서회, 1999.
_____,「폴킹혼(J.Polkinghorne)의 공명론과 유신론적 자연신학 연구」,『組織神學論叢』, 한국조직신학회, 2003, 51쪽.
이혜원,「지상의 성소를 찾아서」,『서정시학』7집, 깊은샘, 1997, 130-139쪽.
장영희,「고진하 시 생태의식 연구」,『문창어문논집』28집, 문창어문학회, 2001, 201-221쪽.
_____,「한국 현대 생태시의 영성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장윤재,「켈트 영성: 창조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교」,『한국기독교신학논총』제71권, 한국기독교학회, 2010, 177쪽.
정성민,「희망의 종말론에 관한 자연과학과 신학의 대화-존 폴킹혼의 종말 이해를 중심으로」,『원우론집』36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2002, 249쪽.
정희수,「기독교의 영성과 동북 아시아의 종교적 심성」,『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96, 23쪽.
진태원,「변용과 연관의 인과론」,『헤겔연구』, 한국헤겔학회, 2010, 219쪽.
홍용희,「신성의 위기와 재생」,『서정시학』7집, 깊은샘, 1997, 102-114쪽.

레오나르도 보프, 김항섭 역,『생태신학』, 카토릭출판사, 1996.
_____, 이세형 역,『삼위일체와 사회』, 대한기독교서회, 2011.
매튜 폭스, 김순현 역,『마이스트 엑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분도출판사, 2006.

슈텍 외, 박영옥 역,『세계와 환경』, 한국신학연구소, 1990.
와위크 폭스, 정인석 역,『트랜스퍼스널 생태학』, 대운출판, 2002.
John. G. Gibbs, 서남동 역,「바울신학의 우주적 그리스도론과 생태학적 위기」,『신학 사상』2집, 1973, 213쪽.
J. 몰트만, 김균진 역,『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한국신학연구소, 1987.
_____, 김균진 역,『오시는 하나님』, 대한기독교서회, 1997.
_____, 이신건 역,『생명의 샘』, 대한기독교서회, 2000.
J. 폴킹혼, 이정배 역,『과학시대의 신론』, 동명사, 1999.
_____, 우종학 역,『쿼크, 카오스 그리고 기독교』, SFC 출판부, 2009.
테이야르 드 샤르댕, 양명수 역,『인간현상』, 한길사, 1997.
존 캅, 김희헌 역,「과정신학이란 무엇인가?」,『신학연구』55집,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2009, 232쪽 참조.
존 캅・데이비드 그리핀, 이경호 역,『캅과 그리핀의 과정신학』, 이문출판사, 2012.
키스 안셀 피어슨, 이정우 역,『싹트는 생명』, 산해, 2005.
화이트헤드, 오영환 역,『과정과 실재』, 민음사, 1991.
_____, 류기종 역,『종교와 신의 세계 : 과정신학의 기초원리』, 황소와 소나무, 2003.
Arne Naess, David Rothenberg Trans, & Ed, *Ecology, Community and Lifesty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F. Capra, *Ecological Literacy, The Web of Life*(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Deep Ecological Patterns of the Christian though in Goh Jin-Ha's Latter Poems

Kim, Dong-myeong

This study identified the deep ecology of Christian ideas in the later poems of Goh Jin-ha, finding the presence and relationship of Creator, nonlinear creation and complexity, and creative transformation and circularity. In his works, relationship, complexity, and circularity were discussed in the deep ecology of Christian ideas.

In the presence and relationship of Creator, life phenomena were discussed with the inherent spirituality of Creator. His poems involved such characteristics that animals including human beings, plants, and objects interacted with one another through the spirituality of Creator. Then, the grounds for relationship were discussed as the possible life phenomena.

In addition, Goh Jin-ha's poems led to nonlinear creation and complexity. In his poems, Creator was implied as 'hidden God' and 'created God'. The Creator manifested life phenomena doing interaction with individuals covering the whole range of ecosystem every moment. Those characteristics were discussed as nonlinear creation and complexity.

Finally, in Goh Jin-ha's poems, death or extinction was interpreted as the opportunity of creation through creative transformation. Death

or extinction described in his poems went forward a new creation doing interaction with the spirituality of Creator by accepting the revival event. Those characteristics were discussed as creative transformation and circularity.

Key Words : Ko Jin-ha, Christian theory, ecology, creative relationship, holistic complexity, Emergent circularity

▌논문접수 : 2015년 11월 13일
▌심사완료 : 2015년 12월 8일
▌게재확정 : 2015년 12월 20일